



즉시 배포용: 2015년 12월 1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세계 에이즈의 날에 본 질병 근절을 위해 뉴욕 주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발표

**Cuomo** 주지사, 뉴욕 시 에이즈 기념비 기금 조성을 위해 50만 달러를 집행

또한 주지사는 2016-2017 예산에 HIV/AIDS 지원을 위해 2억 달러를 편성하여 HIV/AIDS 관리를 위한 25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보충

세계 무역 센터, **Alfred E. Smith** 빌딩 및 **SUNY** 행정부 빌딩은 오늘 밤 빨간조명 등화 실시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HIV/AIDS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본 유행병에 맞서 싸우기 위한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뉴욕 시 AIDS 기념비 기금 조성을 위해 뉴욕 주 예산 50만 달러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세계 무역 센터의 408피트 첨탑, Alfred E. Smith 빌딩 및 Albany 소재의 SUNY 시스템 행정부 빌딩 꼭대기에 오늘 밤 빨간 등을 켜 세계 에이즈의 날을 추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NY 에이즈 종결 2020 연합으로부터 세계 에이즈의 날 리더십 상을 수상한 뉴욕 시 Apollo Theater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조치로 인해 뉴욕 주는 연간 2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지출되는 HIV/AIDS 질환 환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서비스 측면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끔찍한 질병으로 인해 운명을 맞이한 저희의 친구, 친척, 사랑하는 이들을 추모하고 빨리 AIDS를 종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맹세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저는 미국의 모든 주가 AIDS를 종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에 저희 뉴욕 주가 모범적으로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확대 시행하고 HIV 보균자라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며 예방 약물 접근을 저해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뉴욕 주는 이 질병에 대한 겁을 빠르게 메우고 있으며 AIDS를 극복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욕 시 에이즈 기념비는 뉴욕 시 최초의 단독 영구 기념비로서 AIDS로 인해 사망한 10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을 추모하고 AIDS 환자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착수 준비가 완료된 본 프로젝트는 Greenwich 서쪽 12번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18피트의 삼각형 캐노피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본 구조물은 공원의 입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어제 뉴욕 주의 AIDS 종결 계획의 다음 단계에 관한 여러 발표를 시행하였습니다. 첫째로, 주지사는 미국 정부가 HIV/AIDS를 위해 활용하라고 편성한 25억 달러의 예산과 더불어 그의 행정부는 추가적인 금원을 조달하여 뉴욕 주 AIDS 종결 2020 계획에 2억 달러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1. HIV 환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마련과 추가적인 주택 지원 제공
2. 30세에서 60세의 HIV 환자의 생명 보험 가입을 허용
3. Medicaid 프로그램을 위해 보다 많은 재정을 지원
4. 뉴욕 시의 “원스톱” 성병 클리닉을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재정 지원

Cuomo 주지사는 또한 연방 정부에 HIV 및 AIDS 환자에 대한 전국적인 주택 보조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에 제공되는 ‘에이즈 환자의 주택 마련 기회 (이하HOPWA)’는 연간 3억 달러 미만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라 지금까지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항목 이외에 주지사는 내년초 주지사의 시정 연설과 집행 예산에서 에이즈를 종식시키기 위한 주의 계획에 다른 요소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주정부가 에이즈를 2020년까지 종식시키려는 목표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룩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산모로부터 아이에게 HIV가 전염되는 사례는 2014년 8월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개월 이상 이러한 사례가 유지된 것은 최초입니다. 또한 뉴욕주는 HIV 음성인 사람이 감염될 위험을 줄이는 노출전 예방(PrEP) 의약품 가용성 증대 노력에서 전국적 리더로 인정되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Medicaid 가입자의 노출전 예방 의약품 사용은 300 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2,000여명의 뉴욕주민들이 에이즈로 진단되었고, 112,000여명의 사람들이 현재 HIV/에이즈 확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Cuomo 지사의 “에이즈 전염병 종식 태스크포스”는 이 전염병을 2020년까지 종식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3대 과제를 실현하고자 그 시점 이후부터 중대한 절차들이 수행되었습니다. (1) HIV 검사 확대, (2) HIV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제공, (3) HIV 음성자들이 감염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인 PrEP(Pre-Exposure Prophylaxis)를 비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출전 예방약(PrEP)의 사용 증대, 주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 바이러스 억제율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 향상, 그리고 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HIV에 감염된 수 천명의 Medicaid 수혜자 식별이 포함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성취들:

### 뉴욕주가 모자간 HIV/에이즈 전파를 크게 줄이다

HIV/에이즈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지난 12개월에 걸쳐 처음으로 뉴욕주는 모친에게서 자녀로 전달된 HIV/에이즈 감염의 보고가 0건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예비적인 것이지만 HIV에 감염된 가임기 여성들 사이의 극히 높은 바이러스 억제율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또한 임신 여성 검사를 위한 공격적 입장을 확보하여 HIV에 노출된 모든 영아들이 식별되고 예방적으로 적절하게 치료되도록 하는 뉴욕주의 신생아 심사 프로그램의 질을 과시합니다.

### 뉴욕주가 HIV를 안고 사는 주민들 수를 크게 줄이다

신기술과 개선된 방법으로 뉴욕주는 HIV를 안고 사는 주민들에 대한 더욱 정확한 탐지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된 감시 제도와 진료에서 나오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적극 찾는 효과적인 현장 조사자 이용으로 주의 [진료 연속체](#)에 포함된 사람이 약 20,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 새 연속 모델은 진료 이용의 최근 주소와 패턴의 분석에 근거하여 케이스를 지정합니다.

### 뉴욕주의 PrEP 섭취를 전국이 인정

뉴욕주는 HIV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Cuomo 지사의 3요점 계획에서 제3 요점인 PrEP 접근 용이화 작업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해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Medicaid 수혜자들 사이에 PrEP 사용이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 주 보건부 장관 Howard Zucker 박사는 CDC가 주최하는 전국 화상회의에서 소견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 전염병 종식을 지원하는 다음 단계들:

### NYS는 HIV/에이즈 감염자들이 저렴 주택/주거 지원을 받도록 지원 증대를 약속

저렴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는 태스크포스가 개발한 ETE 청사진의 주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주는 HIV/에이즈 감염자들을 직접 돕는 지지 주택을 확대하였으며, 다음 회계연도에는 저렴 주택을 확대하고 HIV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권장 사항에는 복잡하고 교차적인 보건 및 사회 조건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특히 뉴욕의 저소득자 및 가장 취약한 주변부 주민들 사이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주요 개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진료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여 어떤 아집단도 나오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주는 주거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저렴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시와 계속 협력합니다.

### NYS가 HIV 감염자를 위한 생명보험 상품을 승인하다

30세~60세 사이의 HIV 감염자도 충분한 보험 이익이 있고 개인이 특정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제 영구 및 정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판매될 생명보험을 12월 1일부로 승인하였습니다. HIV 감염자를 위한 생명보험 가용성은 HIV 감염자에 대한 과거의 낙인에 대응하는 것이며, 뉴욕주의 많은 HIV 감염자들의 평균 수명을 현실로 만드는 진료의 진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NYS가 환자 연계 및 진료 유지를 진작시키기 위한 Medicaid 관리 케어 프로그램을 출범**  
Medicaid 관리 케어 계획의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이 6,000명의 HIV 양성 환자들을 케어에 포함시키고 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건강 상태가 의문스러운 사람을 찾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를 개발 또는 강화하기 위한 5개 계획에 500,000 달러가 교부됩니다. 2016년에는 데이터 공유 및 케이스 발견이 모든 Medicaid 관리 케어 계획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입니다.

**NYS가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NYC “원스톱” STD 클리닉에 추가 기금을 제공**  
뉴욕주는 성병(STD)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는 뉴욕시 클리닉에 추가 1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기금은 새로 진단된 HIV 양성자들을 위해 PrEP과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즉각 제공하는 ‘원스톱 STD 클리닉’ 모델을 채용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모델은 표적 예방 이용, HIV 및 STD 선별 및 치료, 바이오의학(PrEP) 및 행동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를 제공합니다.

**NYS가 뉴욕주 교정 시설의 HIV 양성 재소자들을 지원**  
처음으로 뉴욕주 보건부(DOH)와 교정커뮤니티감독부(DOCCS)는 진료에서 빠진 것 같은 주 교도소의 모든 HIV 양성 재소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는 모든 HIV 감염 재소자들이 자신의 장기적 건강 전망을 개선하고 병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의 장기적 비용도 감소시킵니다.

**NYS가 HIV 검사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뉴욕주는 주의 모든 병원에 대해 주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일상적 HIV 검사 제안을 준수하는지 검열하였습니다. 금년에 완료된 이 검열에서 많은 병원이 적절한 방침과 절차를 갖고 있지 않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100%의 병원이 방침과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정부는 13-64세 개인에게 HIV 검사 제안 강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 응급과의 환자 입원 기록 수 천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NYS가 전주 지역별 포럼을 통해 뉴욕주민들을 이 전염병 종식에 참여시키다**  
3개월 기간에 걸쳐 800여명의 뉴욕주민들이 에이즈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현지의 노력에 대한 주 후원 지역별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리더들과 선출직 관리들이 지역별 태스크포스 창립, 대중 교육 이니셔티브 및 현지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 네트워크 설립을 통해 주요 전략을 시행할 길을 닦고 있습니다.

**2015년 NYS ETE 대시보드 출범**  
뉴욕주는 에이즈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뉴욕주의 획기적 이니셔티브의 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공공 웹사이트인 ETE 대시보드 시스템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시보드 시스템은 HIV 발생 및 유행뿐만 아니라 HIV 예방, 검사 및 진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뉴욕주의 에이즈 전염병에 대한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DOH가 관장하는 ETE 대시보드는 Hunter College와 뉴욕시립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이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과와 협력하여 설계하였고 유지됩니다.

### 세계 에이즈의 날

금년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Cuomo 지사는 에이즈 종식 동맹이 12월 1일 오전 11시에 뉴욕시 할렘의 아폴로 극장에서 개최하는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할 것입니다. 또한 DOH는 모든 뉴욕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개선 증진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 공헌 및 대응에 대해 주 전역의 공로자들을 기릴 것입니다. HIV/AIDS로 인해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고 해당 질병 환자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연령대의 뉴욕 시민들은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Albany 소재의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 초청되었습니다. NAMES 에이즈 추모 쿼트 프로젝트의 사항들을 전시하고 대중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DOH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는 교육과 인식을 제고합니다. 교육은 관련 낙인과 차별을 줄이고 2020년말까지 우리 주에서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관건입니다.

‘뉴욕 주 AIDS 전염 종식 (Ending the AIDS Epidemic in New York State)’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health.ny.gov/EndingtheEpidemic](http://health.ny.gov/EndingtheEpidemic)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 스케줄 및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 있고 뉴욕주 치료 연속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